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2월 27일 (제1138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우 컬럼

쉽게 말하라

20년 전 LG그룹의 이야기이다. 당시 LG 구분부 회장이 새로 준공한 연구소를 방문 하자 발표자가 연구소의 실적과 목표, 미래 비전 등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

한참을 들던 구 회장이 말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못 알아들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약자를 많이 씁니까?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BMK’가 뭘니까?” 느닷없는 질문에 발표자가 모른다고 당황해한다. “모르겠지요? 그거요, 내 이름 약자입니다. 본부 구, BMK.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쓰는 어려운 용어나 약자를 그런 식으로 막 쓰면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겠어요?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브리핑을 해야지, 고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백 번 옳은 말이다. 나는 목사들에게 쉽게 설교하라고 한다. 헬리어, 히브리어 섞어가며 신학을 논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들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는가. 예수님의 설교를 보라.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알아들게 말씀하셨다. 어떻게든 알아들고 깨닫게 하려고 농사짓는 법, 날씨 등을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하셨다.

설교하라고 하면 자기 지식이나 자랑하는 자들이 있고, 더더욱은 자신도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 왜 그런 설교를 할까? 알아들지 못하는 설교는 에너지 낭비요, 시간 낭비가 아니겠나.

‘수준 높은 설교’란 어려운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하는 설교를 말한다.

나는 교회신문에 글을 쓰는 자들에게도 쉽게 쓰라고 한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말해준다. 읽어도 이해 못 하는 글을 뱉 하려 읽겠는가.

참 지식인은 내가 가진 지식을 상대의 수준에 맞춰주는 지혜까지 갖춘 자다. 사실 그것이 더 어렵다.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어차피 상대도 못 알아들으니 막 말해도 되나, 쉽게 설명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삼키기 어려운 것들을 작고 부드럽게 씹어 먹이는 것과 같으니 더욱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고, 쉽게 써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3년째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우크라이나에 드러운 전쟁의 그림자까지, 세계는 두려움과 암울함에 짓눌려있다. 무엇보다 끝 모를 바이러스 전염병의 기세에 교회마저 힘을 잃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있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다. 텔타변이를 누르고 우세종으로 떠오른 오미크론변이가 무서운 전염력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신문 방송은 연일 확진자수가 최고를 경신했다며 더욱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그런데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희망을 줘야 할 교회마저 악

표적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깟 바이러스에 벌벌 떨며 침륜에 빠져있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안수하여 고친 장면들을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충만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

럼 많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눅13:32), 왜 앉아서 당하고 있단 말입니까? 무기를 주었으면 그 무기를 가지고 적과 싸워 이겨야지요. 우리의 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들의 권세는 이제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실히 자각하고,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자(라트비아 리카집회 광경)

한 마귀의 계에 앞에 나약함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거듭 강조 하셨습니다.

“요즘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마다 코로나에 전염됐다며 기도해달라는 요청으로 넘쳐납니다. 주의 종들마저 ‘검사, 검사’ 하며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내가 38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교훈은 다 어디에 팔아먹은 겁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자의 따르는

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총에 실탄이 들어있어도 두려워서 발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인들 무슨 소용입니까? 또 한 날마다 총구를 쏘아서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니 다 녹슬어 정작 총을 쏘아할 때는 작동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다 녹슬어버립니다. 그러니 날마다 적에게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대부분이 귀신 쫓고 병 고치며 전도하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아니 마가복음 하나만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해매는 악한 마귀와 그 추종세력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일곱 길로 달아날 수밖에 없는 적의 속성을 파악했으니 더 이상 허상뿐인 적 앞에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사53:5). 따라서 우리는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더러운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호4:6). 제발 이 지식을 버리지 마세요. 코로나 따위에 지지 말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 및 수요일예배 대면예배 안내

접종완료자만으로 70% - 1체육관, 1차 및 비접종자는 30% - 2체육관

문의: 02. 533. 9191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 4:20~21)

“성령충만하면 끝난 거다.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니,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목이 터져라 저는 자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왜 매일 저 설교만 하시지?’, 이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했습니까? 설교 거리가 없어서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겠습니까? No!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가난을 쫓아 부유케 되고, 여러분에게 있는 권능으로 병을 쫓아 건강하라는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목걸이가 되던 반지가 되던 할 것 아닙니까?

암행어사에게 마패는 생명이야

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을 보면 복이 복인지, 진리가 진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도 영적 소경이 많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마15:14). 박사인 어느 목사가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를 가르친 스승도, 자기도 영적 소경이었다.’며 귀신의 정체와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 배우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이초석 목사는 절대 소경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보고, 영적 존재들을 다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고,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저만의 전매특허입니까?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나 제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의 받은 성령이 동일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병 때문에 고통 받고, 죄에 눌려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암행어사가 마패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왕이 직접 임명한 자가 왕명을 받고 지방을 순행하면서 민정을 살피며 악정을 규명하던 관직입니다. 왕이 직접 민정을 펴수 없으니까 암행어사가 왕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치정(治定)하는 일종의 대리제도였습니다. 그들은 역마(驛馬)와 역졸(驛卒)들을 이용할 때 마패를 보여 왕의 대리자임을 증명했고, 각 고을 수령들의 비위와 탐오 등을 밝혀내 잘못이 드러나면 그들의 죄질에 따라 형을 집행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주로 허름한 차림으로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고, 천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심을 살피고 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역졸들이 외칠 때 마패를 꺼내들면 그동안 악행

을 일삼던 수령들과 탐관오리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암행어사가 그들을 포승줄에 묶어 죄의 대가를 받게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민 마패는 곧 왕을 대신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암행어사 마패와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행1:8).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입니다(요일3:8).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매 성령을 받으시고,



총회장 이초석 목사

권능을 행하시마귀의 줄개인 귀신을 내어 쫓고, 각색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마패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마패를 찾으니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가 맘껏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보낼 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마10:1),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마10:8)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

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그런데 암행어사가 되레 포졸에게 잡히는 슬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 암행어사야?” 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되레 사또의 명을 받든 포졸에게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마패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상실하면 바로 이런 신세가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귀신의 발이 되고 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오래 믿었다고 권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이상한(귀신들린)

자매가 갑자기 단 위에 뛰어 올라 목사님의 넥타이를 잡고는 목사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목사님은 자매가 끄는 대로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끌려 다니는데, 이를 본 어느 성도가 단에 올라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 했더니만 그 자매가 벌렁 뒤로 넘어지며 귀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신이 든 자매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저를 계속 쏘는데, 저 집사님은 진짜 총으로 나를 쏘어요.” 그럼요, 암행어사도 마패가 없으면 힘없는 백성에 불과합니다. 성령충만한 자는 총알이 든 진짜 총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나를 해치는 동물이 달려들 때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 그것을 죽이거나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면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 장로요, 집사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소멸했다면요? 마귀와 귀신의 장난에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빼앗기거나 잃어버

리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막9:29). 제가 하루 4시간 기도를 기본으로 삼는 이유가 그것이고, 집회에 나가면 7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에 항상 총알을 장전해놓는 것이지요. 마패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힘없는 백성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동트기 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막1:35),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눅5:16).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토리 속에 참나무가 있습니다. 사과 씨 속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땅에 그냥 놔두면 썩고 맙니다. 땅에 심어야 참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마패가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왕이 준 마패를 들고 있으면서 그깟 탐관오리 하나 때문에 벌벌 떨니까? 마패를 내밀면 모든 게 끝나는데요. 그 마패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총알이 든 진짜 총을 들고도 꿈이 두렵습니까? 놀래야 할 것은 꿈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마귀와 귀신을 내쫓아라

여러분, 우리는 아플 권리도, 가난해야 할 권리도, 불행할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가 다 이미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와 병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사53:5). 또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고후8:9). 그러므로 마패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마12:28). 우리는 일생을 귀신과 싸우면서 가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히하여지리라”(눅13:32)고 하셨습니다. 가정에, 교회에, 기업에, 국가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고 싶거든 마패를 잘 챙기세요. 총알을 늘 장전해 놓으세요.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생명이듯,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충만이 생명이니깐요.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추세와 심리가 더 중요하다

로브는 투자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계적인 분석기법보다 오히려 시장의 기본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시점이 디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 시기인지 알아야 하며, 먼저 추세가 어느 방향인지 판단하는데 노력하고, 그 다음 이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종목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적정한 주가수준을 맞춰서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대세상승이나 대세 하락흐름에 따라 투자수익을 얻는 게 확률적으로 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가가 상승 초기단계로 진입하면 종종 너무 비싸 보이다가, 나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며 한참 오른 다음에 갑작스레 조정을 받으면 싸게 보이기도 하지요. 주가수준만 갖고 싸다거나 비싸다는 판단을 내릴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이런 요인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 가서 천정에서 팔면 가장 만족스럽겠지만 바닥과 천정을 어떻게 판단할지 알 길도 없고, 바닥과 천정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관심을 집중하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요인을 꼽는다면 단연 대중들의 심리라고 로브는 강조합니다. 앞으로 6~18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의 총합, 그리고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아무리 복잡한 계산으로도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대중 심리는 아주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주가 변동 요인으로, 기업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때로 인기주가 몇 년 동안이나 과대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론적인 가치를 감안할 때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는 주가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가치보다 크게 저평가된 주가가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하지요. 이론적으로 고평가됐지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을 공매도한다거나 이론적으로는 저평가됐지만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분석하면서 로브가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총합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의 기대는 과연 주가가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가령 배당 수익률과 같은 특정 주식의 어떤 측면을 분석하더라도 반드시 과거에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따져봐야 하며, 여기에 기초해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주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딤후4:15)”는 말씀대로 투자분야에서도 부지런히 정보를 찾고 연구하고 실행하여 투자 성과도 크게 향상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당연한 일은 없다

지하철을 타면 비상시 대피방법에 대해 적힌 문구를 볼 때마다 스치듯 나는 경이 없을 것이라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묵적지만 생각하며 내리곤 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일로만 여겼던 지하철 화재사건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설 명절 전 수요일 오후, 엄마와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통화를 하던 중, 수화기 건너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바뀌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직감하는 순간, 전화는 갑작스럽게 끊어졌다. ‘괜찮을 거다’ 기도하며 불안감을 누르고 전화를 다시 연결해보았지만 엄마는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10분 정도 흘렀을까? 엄마는 놀라고 숨찬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셨다. 지하철 화재였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하셨다. 지하철 직원들이 빨간 깃발을 들고 대피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서로 나가겠다고 달려 나가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들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린다고 전화하고 있다는 상황설명을 해주셨다. 세상에나 정말 감사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 역시 놀라고 다급했던 그 마음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몇 주 전 예배시간에 들었던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다시 생각났다. 사실 설교를 듣고 나서도 한 번씩 입에서 되새기곤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느끼게 될 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3월을 기다리는 지금도 더 뚜렷하게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서 어제와 같은 오늘, 평범하고 편안한 일상에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함을 느낀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하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시115:15).

이인영 집사



:: 교단소식 ::

열등감과 두려움은 모르는 데서 오는 병이다



지난 2월 22일, 2022학년도 예수중심신학교 신학생 면접이 노량진 교육관에서 있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면접에 앞서 주의 종 길을 자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를 쓰시지 않는다. 열등감이 뭐냐?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열등감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독한 병이다. 알지 못하니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이다.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배우는 거다. 부단히 노력해서 모르는 것을 알면 된다. 나는 주의 종 길을 가면서 공부를 시작한 늦깎이 만학도(晩學徒)다. 그래서 남달리 공부했다. 나는 남에게는

변호사처럼 너그러웠지만, 나에게만은 검사처럼 까다롭고 모질게 대했다. 주경야독은 물론이요, 늘 책을 벗 삼아 살았다. 알게 되니 자신감이 생기고, 알게 되니 여유가 생기고, 알게 되니 잠재되어 있던 열등감이 사라졌다. 우리 때는 녹음기 하나 장만하기도 힘든 세상이었지만, 요즘은 유선생(유튜브)을 통해 모든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려고만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태하면 어찌 살아남겠는가. 지식함양은 필수다. 더욱이 목사가 되려는 자들이 아는 게 없어서야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상식으로는 대화까지는 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지식이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제자들을 ‘군사(軍士)’라고 하셨다. 사명자이기에 그렇다. 군사는 선비(士)를 사용한다. 곧 이는 부르심을 입은 군사는 문무(文武)에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무(武), 곧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선비처럼

배워야 하고, 노력해서 지식(文)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牧師)는 스승(師)을 쓴다. 스승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배움과 노력, 인격과 처신을 갖춰야 비로소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노력과 배움에 정진하길 바란다.

그리고 당부하고픈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군사는 생활에 엄매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자는 그것에 신경을 쓰느라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14:26)라고 하신 것이다. 둘째,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였느냐”(눅14:28)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이는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없게 된다. 가다가 중지하면 남들이 비웃지 않겠는가. 엘리사를 따르던 생도가 아무 대책 없이 주의 종 길을 가다가 죽으니 쌓인 빛 때문에 그의 자식들이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셋째, 주의 종은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제 때에 나팔을 불지 않아 악인이라도 죽게 되면 하나님은 그 피 값을 파수꾼에게 물으신다고 에스겔 3장에, 33장에 거듭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사명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가?

주의 종의 사명은 이것이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사43:8).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자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선견자(先見者)요, 선각자(先覺者)가 되어야 한다.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요, 선각자는 먼저 깨닫는 자니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야 어찌 주의 종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배우고 익혀라! 노력해라! 열등감 대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다시 문을 연 예수중심신학교에서 제2의 바울, 제2의 이초석 목사가 배출되기를 바라며, 또한 명실상부한 예수중심신학교가 되길 간절히기도한다.

신묘수 전도사

다시 일어나리라



1990년 신문 광고를 보고 체육관집회를 찾아가서 드린 예배에 성령을 받고 그 후에 인천 청년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작전동과 계산동 조장을 맡게 되었는데, 등록된 인원은 많으나 나오는 인원은 저랑 구역장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연명부를 받고 심방 다니며 전화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때 주일날이면 주일예배 청년부예배, 임원모임, 교구모임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 8~9시가 되었는데,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나오지 않는 청년 집을 심방하고, 없으면 문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주중에는 회원들과 청년들의 정보를 교환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관리했더니 2년 정도 되었을 때 처음에 2명이 나오던 교구에 2~30명 정도의 청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구역예배 드리는 날, 기도처에서 기도드리고 예배 인도를 위해 가다 보니 비가 많이 와서 구두가 흠뻑 젖었는데, 예배 후 연속 자매가 내 신을 밟고 물이 짝~하고 나오는 걸 봤다면 그 주에 구두 티켓을 한 장 주었고, 또 호원 형제가 한 장을 주고, 그달에 고향 집을 갔는데 오빠가 구두 티켓을 주어서 그달에 구두 티켓을 3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많지 않았다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긴 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에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주공아

파트 광고를 보고 모텔하우스에 가서 보면서 "하나님, 너무 좋으네요. 저도 주심 좋겠어요." 하고는 잊고 있었는데 부개 주공아파트가 당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더욱 기도와 전도에 힘썼는데, 한날은 더운 여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아랫동네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이 미친년아! 왜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소릴 질러서 아들이 무서워하게 하느냐?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간다고!" 하면서 뛰어 올라와서 욕을 하고 가신 적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고 꾸준히 매일 했습니다. 늘 직장 갔다가 초저녁에 쉬었다가 밤 11시쯤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남동 남구를 맡아 교구장을 하게 되었는데 청년부 담임으로 이시대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부흥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청년부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더 이상 교구장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을 내지 않고 형식적으로 직분에 임하며 조장 구역장에게 시키기만 하고 저는 하질 않았습니다. 부흥회 첫날 조장 구역장들은 대형버스를 갖고 나가서 동인천 주안 검단사거리로 나가 맨투맨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데려오는데 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빨리 집회가 끝나고 직분을 내려놓을 생각만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 못한 조장 구역장을 위로하고 다독여 주지 못하고 오로지 '언제 말씀드리지?'라며 내 생각만 했습니다.

첫날 집회 후 목사님께서 청년임원들에게 식사를 배설해주셔서 저와 조장, 구역장이렇게 셋이 베스타를 타고 가는 도중 구역장과 조장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나에게 진위를 묻기에 들어보니 조장의 말이 맞아서 조장 말이 맞다고 한마디 했는데 운전하던 구역장이 오른 주먹으로 무방비로 있는 제 왼쪽 뺨을 때리더니, 제물포 후문에 차를 세우고 돌아와서는 제게 발길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치는데도 꼼짝도 못

하고 맞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고 직분을 그만둔다고 마음먹고 방관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들어서 때리시는구나.' 생각하니 손가락 하나 꼼짝을 못하고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하니 바로 사람을 들어서 치시는구나.' 깨달으니 구역장이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청년 때 같이 활동했던 청년들과도 소식이 끊어지고 있던 중, 그 당시 교구 일을 했던 청년(지금은 집사)과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암으로 투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구역장으로 있던 청년과도 연락이 되면서 기도 부탁을 받고 금식을 세 차례씩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문제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5일 금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33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그 자리인 것 같던 내 생활로 인해 기쁨이 없었는데, 예전 나와 같이 열정을 갖고 했던 이 두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다 보니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기도가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나를 섬겨주고, 나와 같이 교구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랑하는 우리 교구 총무와 구역장, 사랑하고 사랑한다. 너희들은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동역자였어. 고맙고 감사해. 고통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게 없다고 하는 우리 교구 총무,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나에게 "우리 영적 실업자는 되지 마시라."라며 나를 채근하는 우리 구역장, 우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남은 삶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자.'

불씨가 꺼지기 전에 불을 땡겨야 합니다. 혹시 불이 꺼졌거든 불씨를 옮겨와 불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불이 꺼지면 내 삶이 어둡고, 춥고,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매숙 집사

넘지 말아야 할 선

고등학생 시절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르다 보니 목이 쉬는 것을 감지했지만, 개의치 않고 더욱 크게 노래를 불렀다. 결국엔 목이 많이 쉬었고, 그 뒤로는 고음을 낼 때마다 불편한 느낌이 들어 예전만큼 고음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갓 서른이 되었을 때 회사 동료와 카페를 갔다. 동료가 한턱내겠다고 하여 초콜릿 마니아로 통하던 나답게 핫초코 한 잔과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하였다. 막상 먹다 보니 핫초코도, 초콜릿 케이크도 너무 달아 먹기가 버거웠지만, 사웠는데 남기기도 그렇고, 초콜릿 마니아 체면도 있어 다 먹어치웠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점점 뭔가 건널 수 없는 불쾌한 느낌이 온몸에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자주 체하게 되어 고생한 경험이 있다.

세상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유연합의 한계를 넘어설 때 부러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과 훈과 육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경계선 말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넘어서면 안 되는 조심스러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선들을 넘어서기 직전에 본인은 안다는 것이다. '아,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생각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자가 있는 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질러버리는 자도 있다. 본인의 선택, 그 이후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고장 난 브레이크가 무서운 건 멈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망가진 후 멈추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들릴 때 귀를 닫지 말아야 한다. 후회는 가장 큰 고통이기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막3:29). **박천영 집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Good News

성경에는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경고도 우리를 무시하여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룻이 사위들에게 소동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었으나 무시하며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

지만 말세의 현상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다가 탈이 난다는 뜻으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자들의 말로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천지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선수 자신이 마음대로 경기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영생에 관한 문제도 인간의 이성으로 자신의 취향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상화평 목사

